



턱관절 질환

김재형 전남대치과병원장

# 손톱 물어뜯기·이 악무는 습관부터 버려라

턱관절은 머릿뼈와 아래턱뼈가 귀 앞에서 맞물려 이루어지는 관절이다. 하나의 아래턱뼈가 양측에서 맞물리는 특이한 관절로 아래턱뼈에 달려있는 치아와 주위의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 신경, 혈관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잡한 구조물이다. 그만큼 턱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원인 또한 다양하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자세, 구부정한 자세와 같은 자세적 문제에서부터 이갈이, 이악물기, 외상, 스트레스, 갑작스런 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턱에서 딸깍 혹은 돌이 갈리는 소리가 나고 입이 잘 안벌어지거나, 귀 앞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나 어께, 목 부위에 통증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교합장치치료 등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이 있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턱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는 꼭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란다.

◇턱관절 이상으로 얼굴 변형이 온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 중 얼굴에 비대칭이 생겼거나 사각턱이 났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다. 양측 관절 중 한 관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한쪽 관절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져서 비대칭이 된다고 한다. ‘사각턱이 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절의 부종이 아래턱뼈의 각진 부분에 쌓여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턱관절 이상으로 얼굴 변형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턱에서 소리가 나는 환자는 턱관절 디스크 환자인데 디스크가 빠져서 턱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지만, 디스크의 두께는 1~3mm로 디스크가 빠지더라도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란 매우 힘들다. 또한 턱관절염 환자들은 턱뼈가 닳아지게 되는데 이 또한 수직적으로 닳아지기 보다는 ‘외측극’이라 하는 가장자리 부분이 닳아질 뿐이다. 턱관절의 부종이 아래턱뼈의 각진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씹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근육의 발달로 사각턱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턱관절 이상이 몸의 이상을 불러온다? =턱관절의 이상이 생겨서 불임이 되고, 허리가 휘며, 풍이 생길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를 찾기 힘든 주장이다. 이 외에도 여러 부위에 이상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막동통증후군’이라 하여 만성화된 근육성 통증을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 턱관절 질환 근육 장애의 한 가지로 생각하고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 두통도 턱관절 질환이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임, 풍, 허리관절이상 등은 아직까지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 밝혀두고 싶다.

◇턱관절 치료를 위한 장치치료 =턱관절은 치아, 얼굴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등이 관련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물이다. 단순히 관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음식을 씹기 위해 치아,

얼굴 근육 등의 여러 구조물들이 어우러져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장치를 부착해 치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과 불편함을 감수해야하



김재형 전남대치과병원장이 턱에서 자주 소리가 나는 여성을 진찰하고 있다.

### 턱에서 딸깍소리 나거나

### 입이 잘 안벌어지면 의심

### 귀·어깨 통증에 두통 유발도

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턱관절 치료를 위한 1회성 장치 치료라 하여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장치치료요법은 치아에 적합시켜 주는것으로, 치아와 이가 맞물리는 양상과 저작계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띠고 치료전문가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치료를 해야만 한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변하게되고 이에 따라 장치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성으로 장치를 장착하게 하고, 이후에 적절한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턱관절 치료는 수술이 우선이다? =턱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동요법, 물리요법, 약물요법, 장치요법 등으로 대변이 된다. 이 외에 수술요법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성급히 시행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외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보존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수술을 시행할 때는 다각도의 검사가 이루어진 후 소신스럽게 선택을 해야한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턱관절 질환 다음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입을 벌리고 다물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그것이 본인이나 옆 사람에게 들리는 경우.
- ▲턱을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자유롭게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 ▲입을 크게 벌리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 발생.
- ▲귀나 귀 앞 부위, 뺨, 턱, 목구멍 또는 관자놀이의 통증.
- ▲원하는 만큼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 ▲짖은 두통, 밤중에 이갈이.
- ▲식사를 많이 하고 난 후나 치과 치료후 턱의 불편함을 느낄 경우.
- ▲윗니와 아랫니가 불편하게 맞물릴 때.
- ▲윗니와 아랫니를 꼭 무는 버릇
- ▲아침에 일어날 때 턱이 불편하거나 두통 발생.
- ▲항상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지.
- ▲턱에 외상이나 충격받은 적이 있는가?
- ▲턱 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잠을 설치거나 일상 활동 및 행동 제약
- ▲신경성 위장 장애나 궤양 여부
- ▲다른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

※위의 항목 중 8~10개 이상이 본인에 해당된다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스텐트 논문

### 세계적 SCI 학술지에 게재

#### 외국 제품과 비교 우수성 입증...상용화 임박

전남대병원이 개발한 심혈관계 스텐트의 성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가 개발한 심혈관계 스텐트(이하 CNUH스텐트)에 관한 연구내용이 세계적 SCI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더스트리얼 케미스트리(Journal of Industrial Chemistry)’지 1월호에 실렸다.

‘새로 제작된 심혈관계 스텐트의 기계적 특성과 동물실험 결과’라는 제목의 이번 논문은 CNUH스텐트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국산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는 내용이다.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센터는 이로써 CNUH스텐트의 우수성과 함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이번 논문에서 CNUH스텐트가 세계적인 스텐트 제조사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사-메드트로닉사-에보트사의 제품과 비교해도 유연성·단축성·위축성 등 모든 성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 CNUH스텐트는 매우 유연해 시술하기 편리하고, 스트레스에 잘 견디며 혈관을 안정되게 넓혀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CNUH스텐트는 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센터가 의료기기제조 허가증을 획득한 것으로, 조만간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명호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CNUH스텐트의 성능이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텐트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CNUH스텐트가 상용화 되면 심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약학대학 ‘실습 교육’ 호응

### 임상 지식·복약지도 등 약국 실무 익혀

전남대 약학대학(학장 김경만)이 학생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실무실습 교육’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비약사들은 인턴지도 약사(프리셉터)의 지도 아래 약에 대한 임상적 지식 및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포함, 약국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를 익히고 있다. 기초교육은 대학에서 하지만, 환자를 상대하고 약을 조제하는 실무교육은 선배 약사가 담당하는 신개념의 약학교육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약학대학 졸업생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양질의 복약지도도 제공하기 위해 약학대학 학제를 기존 4년제에서 6년제(2+4)로 개편했으며, 교육과정 중 ‘실무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의 경우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실무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김경만 전남대 약학대학장은 “실무실습 교육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약사의 배출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vision.com](http://www.cjhellovision.com)